

企業規模에 따른 會計行態의 差異에 관한 研究

郭 守 根* · 辛 承 卯**

《目 次》

I. 序 言	인한 애로사항
II. 研究의 概念的 틀 및 研究方法	4. 會計關聯 規程集의 保有與否
1. 研究의 理論的 背景	5. 決算業務遂行의 頻度
2. 研究의 概念的 틀	6. 原價差異分析의 頻度
3. 研究方法	7. 會計部署의 機能에 대한 經營者 의 認識
III. 會計行態 把握의 結果	8. 外部公示 財務諸表의 役割에 대 한 經營者의 認識
1. 會計部署外 資金部署의 區分 與否	IV. 結 論
2. 管理會計部署의 區分與否	
3. 財務會計外 稅務會計의 差異로	

I. 序 言

오늘날 우리나라의 회계학 연구는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및 회계감사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실증적 연구방법과 분석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이를 연구들은 기업에서 실제로 회계정보가 산출되고 이용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데 등한시함으로써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회계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예측함과 아울러 중요한 회계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데 그다지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예컨대, Mattessich (1984)는 회계연구가 技術的이고 수리적이며 통계분석적으로 되고 어려운 실증분석기법을 사용함에 따라서 회계연구자와 전문적인 회계실무종사자 사이에 그리고 심지어는 회계연구자 사이에서도 상호 일치된 이해에 도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 서울大學校 經營大學 教授

**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특별연구원

본 연구는 1993년에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한국기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여 수행되었음.

Bruns and Kaplan(1987)은 분석적 연구, 실험적 연구, 조사연구 등의 전통적인 연구방법은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현재의 기업에 있어서의 관리회계현상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지식을 얻는 데 부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은 전통적으로 회계의 역할은 기업외부의 이해관계자와 기업내부의 경영자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规範的으로 가정되어 왔을뿐 이러한 회계정보와 의사결정 사이의 관계를 분석적으로 검토하는 데 등한시하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예컨대 Burchell 등(1980)은 “그 동안 회계의 使命이라고 주어졌던 것에 대한 재평가를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는 있다. 학문적인 탐구의 결과와 실제 회계행위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압력으로 인하여 몇몇 사람들은 실제 회계행위 현장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분석함과 아울러 이를 토대로 하여 그 동안 의문의 여지가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여 졌던 것에 대하여 의문과 문제점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실제의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회계현상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없이는 기업이 직면하는 회계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그 동안의 회계학연구는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회계문제가 발생하는 실제 기업회계현장의 행태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다. 최근에 회계학을 연구하는 학계와 회계실무계 사이에 괴리현상이 심각하다고 하는 논의가 있는 것은 이러한 그 동안의 회계연구에 기인하는 바 크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미비점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하여 우선 몇 가지의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반적인 회계행태를 알아보고,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회계의 役割과 機能이 分化 擴大될 것이라는 추론하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이러한 회계행태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봄으로써 이로부터 몇 가지의 시사점과 가능한 개선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그 동안의 회계학연구들이 회계실무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도외시하거나 현실적인 적용가능성이 없는 주제를 다루어 응으로써 실제로 회계정보를 생산하는 사람 및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일치하지 않거나 탁상공론에 흐를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연구는 비록 假說檢定的 연구는 아니라 할지라도 현재의 회계행태에 대한 問題發見的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또한 앞으로 실제의 회계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회계학연구들을 수행하는 데 유용한 몇 가지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질 것이다.

Ⅱ. 研究의 概念的 틀 및 研究方法

1. 研究의 理論的 背景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에 있어서 기업규모에 따른 회계행태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는 바 여기서는 기업규모가 다름에 따라서 회계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 그리고 이에 따른 회계행태가 왜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논리를 전개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전통적으로 회계의 역할 및 기능은 기업내외의 경제주체가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이때 이러한 회계의 역할 및 기능은 단순히 가정되고 있을뿐 分析的으로 記述되지 않음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회계실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회계의 역할은 이러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事前的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실제로 회계가 행해지는 조직내에서의 과정으로부터 회계의 역할이 發生하고創造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회계란 組織의 實在 (organizational reality)를 반영하여 概念化(conceptualization)한 것으로서, 조직내에서 무엇이 회계행위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조직내 참여자들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Burchell 등(1980)은 조직내에서의 目的의 不確實性과 因果關係의 不確實性에 따라서 의사결정형태를 4가지로 분류한 Thompson and Tuden(1959)의 연구를 이용하여 각각의 의사결정형태에서 회계정보의 역할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다음의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이 의미하는 바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행위의 목적이 확실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분명한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은 행위의 결과로 목적이 실현될 수

(표 1) 불확실성에 따른 회계정보의 역할

		목적의 불확실성	
		낮 음	높 음
인과관계의 불확실성	낮 음	해답기구 (answer machine)	탄약기구 (ammunition machine)
	높 음	해답기구/학습기구 (answer machine/learning machine)	합리화 기구 (rationalization machine)

있는지에 대한 계산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에 회계는 解答機構로서의 역할을 하며 이는 투자안평가나 신용통제 등 관리회계의 영역에서 많이 나타난다.

행위의 목적은 확실하나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의사결정 문제에서는 계산의 역할은 줄어들고 의사결정자의 판단이 중요해진다. 이러한 경우에 회계는 의사결정시스템과 같은 學習機構로서의 역할을하게 된다.

행위의 결과는 잘 알려져 있으나 의사결정 참여자가 각각 상이한 목적을 갖고 있어서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는 의사결정문제에서는 정치적 태협이 중요해진다. 이러한 경우에 회계는 각 의사결정자의 입장을 보강해주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彈藥機構로서 불리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자의 목적이 불확실함과 동시에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불확실한 경우에는 犯感에 의한 의사결정을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에 예상하지 않은 행위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므로 의사결정자들은 회계를 이미 결정된 행위들을 정당화시키는 合理化機構로 이용하게 된다. 회계정보가 합리화기구의 역할을 하는 것은 회계시스템이 신축성을 가지고 있고 회계정보가 객관적이고 편의가 없는 것처럼 일반인에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Burchell 등이 제시한 바에 의하면 조직내 목적의 불확실성과 인과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회계는 단순한 해답기구로서의 역할보다는 학습기구로서의 역할이나, 탄약기구로서의 역할 또는 합리화기구로서의 역할을 보다더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거에 따르면 기업에서의 목적의 불확실성과 인과관계의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서 회계가 수행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역할이 달라질 것이며 그 결과 실제 나타나는 회계행태도 달라질 것이다.

2. 研究의 概念的 틀

기업규모가 커지면 일반적으로 기업내부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효가 커지고 또한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의 종류와 수효가 커짐으로써 목적의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기업규모가 커지면 기업의 업무내용이 보다 복잡하고 다양하게 됨으로써 기업활동과 관련한 인과관계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¹⁾

(1) 물론 이해관계의 복잡성이라는가 업무의 복잡성 등을 기업규모가 완전히 올바르게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기업의 업종이라든가 재무구조 또는 기업제품의 수명주기 등도 이들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나 일단은 규모가 이들을 대변할 것이라고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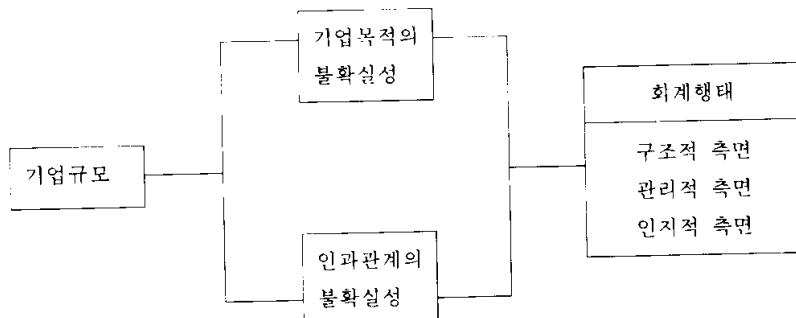
이러한 추론과 앞서 언급한 Burchell 등(1980)의 연구결과를 따르면 기업의 규모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기업에서 회계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이 다르게 될 것이고 따라서 실제의 회계행태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기업규모에 따라서 회계행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영역은 여러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다음에 언급한 몇가지의 영역에 국한하여 파악하기로 한다.

회계는 기업을 경영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는 경영현장의 여건을 규정하는 構造的 측면과 이러한 구조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管理的 측면 그리고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사고방식과 태도인 認知的 측면이라는 3가지 측면이 상호작용함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회계행태의 현황을 회계와 관련된 구조적 측면, 관리적 측면, 인지적 측면에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기업규모에 따라 회계행태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논리를 따르고 분석할 회계행태의 주요 3가지 측면을 설정하면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은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틀에 따라 회계행태의 3가지 측면 각각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된 몇 가지의 사항을 선택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행태의 현황을 알아보고 이러한 회계행태가 기업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구조적 측면에서는 기업이 大規模化 될수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조직구조상 회계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기능이 보다더 특화되고 분화될 것이라고 보아 회계부서와 자금부서의 구분여부와 관리회계부서의 분화여부를 알아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재무회계가 세무회계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바 이러한 양상이 기업규모에 따라



〈그림 1〉 연구의 개념적 틀

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하여 기업이 겪게 되는 주요 애로사항을 알아보았다.

관리적 측면에서는 기업이 대규모화 될수록 업무가 복잡해지고 통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회계부서의 업무도 다양하고 복잡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따라 회계부서의 업무를 객관적이고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회계가 보다더 개념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회계관련 규정집의 보유여부를 살펴보았다. 또한 기업이 대규모화 될수록 회계는 단순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과평가나 경영통제의 기능도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때 재무제표를 비롯한 회계정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려면 가능한 한 자주 결산업무와 원가차이분석을 하여야 할 것이라는 추론에 입각하여 결산업무수행의 빈도와 원가차이분석의 빈도를 알아보았다.

인지적 측면에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회계부서가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이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회계부서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에 대하여 경영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외부공시 재무제표가 수행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역할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는 추론하에 외부공시 재무제표의 역할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현황을 알아보았다.

3. 研究方法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몇가지 회계행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행태가 기업규모별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한 설문서를 작성하고 이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현황파악 및 문제발견적 연구방법에 의하여 우리나라 기업회계의 행태와 이의 문제점을 분석 파악하고, 이러한 행태 및 문제점이 시사하는 바와 이들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1차 및 2차의 설문지 우송조사를 통하여 다음의 기간 중에 입수하였다.

1차 조사: 1992년 6월 20일 ~ 7월 25일

2차 조사: 1992년 8월 15일 ~ 9월 20일

그리고 이들 설문지 자료 이외에 부분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신용평가(주)에서 발간한 「1992년 한국기업 재무총람」을 통하여 자료를 입수하였다.

표본추출은 한국신용평가(주)가 발간한 「1992년 한국기업 재무총람」에 수록된 기업 중에서 금융업 이외의 산업에 속하고 1991년도 결산일 현재 총자산 규모가 4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이들 중에서 상장기업 500개사, 등록기업 900개사, 일반

기업 1,000개사를 할당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체계적 표본추출에 의하여 2,400개사를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기업에 설문지를 우송하고 이로부터 응답된 304개의 기업을 최종적인 표본기업으로 하였다.

한편, 기업규모별로 회계행태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기업들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兩分한 후에 대기업집단과 중소기업집단 사이에 회계행태의 차이점이 발견되는지 알아보았다. 이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은 중소기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종업원수 300명을 기준으로 하였다.

III. 會計行態 把握의 結果

1. 會計部署와 資金部署의 區分與否

회계가 기업의 경영관리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회계업무와 자금업무를 구분하지 못하고 같은 종류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회계가 화폐적으로 측정가능한 거래에 대한 測定 및 傳達을 그의 주된 기능으로 하는 데다 상당수의 기업에 있어서 회계부서와 자금부서가 구분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회계부서의 업무에 자금업무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회계부서와 자금부서가 구분되어 있음으로써 회계부서의 업무가 자금업무와 분리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행태를 파악하는 데 의미를 지닐 것이다.

회계부서와 자금부서의 구분여부에 대한 분석결과를 분석대상 전체기업의 경우에 대한 것과 기업규모별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구분된 기업의 경우에 대한 것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회계부서와 자금부서가 구분되어 있는 기업은 전체표본기업의 56.8%인 159개 기업으로서 절반수준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한편, 이를 기업규모별로 나누어 파악해 보면 대기업은 74.7%의 기업이 회계부서와는 별도로 자금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비하여 중소기업은 36.2%의 기업만이 회계부서와는 별도로 자금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대기업일수록 회계부서와 자금부서가 구분되어 운영될 것이라는 추론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²⁾

이러한 기업규모별 차이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계부서와는 별도로 자금부서를 설치

(2)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차이의 유의성을 χ^2 검정해보면 유의수준 0.1% 미만에서 유의적이다.

〈표 2〉 회계부서와 자금부서의 구분여부

	전체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별로 구분된 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구분되어 있음	159(56.8%)	112(74.7%)	47(36.2%)
구분되어 있지 않음	121(43.2%)	38(25.3%)	83(63.8%)
합 계	280*(100%)	150(100%)	130(100%)

*원래 설문지에 응답함으로써 분석을 위한 최종적인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의 수효는 304개이나 설문지의 일부항목에 대하여 응답을 하지 않은 기업들을 missing value 처리한 결과 분석대상 총기업의 수효가 304개보다 작은 280개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이후 제시될 다른 표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다.

운영하는 것이 原價/效益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기업이 대규모일수록 이해관계자 집단의 범위가 더 넓고 이들과의 이해관계도 더 복잡하고 긴밀할 것이다. 예컨대 대기업일수록 경영자와 주주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하여 대리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리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경영자와 주주 사이에 여러가지의 계약조건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일수록 이러한 이해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회계정보를 산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회계부서가 필요할 것이므로 회계부서와는 별도로 자금부서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반면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해관계문제가 상대적으로 그다지 심하지 않을 것이므로 회계부서가 자금업무를 겸해서 수행하는 것이 업무효율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분석결과는 경영통제상 필요한 内部統制의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 있다. 기업이 대규모화 될수록 여러가지의 업무를 하나의 부서 또는 한 사람이 수행하는 것은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대기업일수록 내부통제의 필요에서 회계부서를 자금부서와 구분할 유인을 더 많이 느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회계부서는 자금부서와 구분됨으로써 유용한 회계정보를 산출하는 데만 전념하도록 조직상의 위치와 역할이 규정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즉, 기업이 대규모화 될수록 기업이 직면하게 될 각종의 이해관계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회계정보를 효율적으로 산출하고, 아울러 회계업무를 자금업무와 분리시킴으로써 올바른 내부통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회계부서를 자금부서와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점차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2. 管理會計部署의 區分與否

전통적으로 회계는 크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되어 오고 있다. 이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서로 다르고 이들 양자간에 기본적인 사고방식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재무회계는 기업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업무로 하는 데 비하여 관리회계는 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인 경영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여 경영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기본업무로 한다. 따라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각각 효율적으로 수행되려면 가능한 한 회계부서 내에서 재무회계부서와 관리회계부서가 서로 구분되어 있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관리회계부서의 구분여부에 대한 분석결과를 분석대상 전체기업의 경우에 대한 것과 기업의 규모별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구분된 기업의 경우에 대한 것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회계부서내에서 재무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는 별도로 관리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설치 운영되는 기업은 전체기업의 32.0%인 89개 기업으로 나타나고 있어 비교적 낮은 분리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는 관리회계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지 못함으로써 관리회계부서를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을 불필요하게 여기거나, 또는 설사 관리회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회계 활동을 수행할 적절한 방법이나 절차를 잘 알지 못함으로써 관리회계부서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처럼 전체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리회계부서의 구분정도가 미진하지만 이를 기업 규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다른 양상이 관찰되고 있다. 즉, 대

〈표 3〉 관리회계부서의 구분여부

	전체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별로 구분된 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구분되어 있음	89(32.0%)	70(47.0%)	19(14.7%)
구분되어 있지 않음	189(68.0%)	79(53.0%)	110(85.3%)
합 계	278(100%)	149(100%)	129(100%)

기업의 경우에는 47.0%의 기업이 관리회계부서를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7%의 기업만이 관리회계부서를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다.⁽³⁾ 이러한 현상은 기업이 대규모화 될수록 업무가 복잡하게 됨에 따라 기업업무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관리회계정보를 기초로 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관리회계부서를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이 부서로 하여금 관리회계정보를 생산하여 경영자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점차 요구됨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財務會計와 稅務會計의 差異로 인한 애로사항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세무회계의 영향으로 인하여 재무회계 고유의 역할과 기능이 왜곡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즉, 우리나라 기업들은 각종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한다는 재무회계의 기본기능을 달성하고자 하기 보다는 법인세법 등의 세무규정에 따른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데 필요한 근거서류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치중함으로써 세법규정 중심으로 회계처리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있게 된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재무회계와 세무회계가 상이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의 차이항목을 조정하기 위하여 결산시에 稅務調整을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따르기 보다는 가능한 한 재무회계를 세무회계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들이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하여 겪는 주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세무회계로 인하여 재무회계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이처럼 영향을 받는 양상이 기업규모별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하여 겪는 주요 애로사항에 대한 분석결과를 분석대상 전체기업의 경우에 대한 것과 기업의 규모별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구분된 기업의 경우에 대한 것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전체기업의 49.3%가 접대비나 기밀비와 같은 주요 비용항목들이 세법상의 필요경비 한도규정에 의하여 損金不算入되는 것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감가상각비의 손금한도 및 지급이자의 손금한도와 같이 기업의 입장에서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각종의 세무조정항목(26.8%),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사이의 수익인식 시

(3)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차이의 유의성을 χ^2 검정해보면 유의수준 0.1% 미만에서 유의적이다.

〈표 4〉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애로사항

	전체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별로 구분된 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수익인식 시점의 차이	49(18.0%)	27(18.5%)	22(17.5%)
필요경비의 손금불산입	134(49.3%)	70(47.9%)	64(50.8%)
불필요한 세무조정	73(26.8%)	40(27.4%)	33(26.2%)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16(5.9%)	9(6.2%)	7(5.6%)
합 계	272(100%)	146(100%)	126(100%)

점의 차이(18.0%) 등을 애로사항으로 응답했다. 한편, 그 동안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기업들에게 많은 애로점을 줄 것으로 지적되어온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는 그다지 큰 애로사항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러한 현상은 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하여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세법규정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많다. 회계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가장 잘 반영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세법규정을 따라 회계처리를 한다면 이는 회계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세법의 규정이 회계의 기본원칙을 가능한 한 많이 수용하도록 합과 아울러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나 의미가 없는 세무조정항목들은 폐지하거나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기업들이 세무조정업무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본연의 회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데 치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會計關聯 規程集의 保有與否

현행 회계기준에서는 선택가능한 몇 가지의 회계방법을 규정하고 이를 중에서 기업이 적절한 것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기업에 있어서는 기업 특유의 상황으로 인하여 필요한 계정과목의 종류와 주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절차가 달리 설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여러가지 발생가능한 경우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규정한 회계관련 규정집이 있으면 기업의 회계처리가 일관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산출된 회계정보가 객관적임을 제시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회계관련 규정집의 보유여부에 대한 분석결과를 분석대상 전체기업의 경우에 대한 것과

기업의 규모별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구분된 기업의 경우에 대한 것으로 나타내면 다음과의 <표 5>와 같다.

<표 5>를 보면 전체 표본기업의 61.3%인 171개 기업만이 회계관련 규정집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상당수의 기업이 회계관련 규정집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를 기업 규모별로 파악해 보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72.7%의 기업이 회계관련 규정집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우의 48.1%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당초에 예상한 것과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회계처리 업무가 非公式的인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나타내는 것이다.⁽⁴⁾

이처럼 대기업일수록 회계관련 규정집의 보유비율이 높은 현상은 대리이론과 신호이론에 근거하여 해석해볼 수 있다. 기업이 커지면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 집단이 다양해지는데 이러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이해관계 상충의 문제를 해소하려면 회계정보가 보다 객관적이어서 신뢰성이 높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회계관련 규정집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으로써 자의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음을 대외적으로 신호할 유인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한편, 기업이 커지면 事業部制를 비롯한 分權化가 진행됨으로써 기업내부적으로도 상하위 경영자들 간에 성과평가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각 경영자 계층별 및 기업내부의 부서별로 정보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회계관련 규정집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식화된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5> 회계관련 규정집의 보유여부

	전체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별로 구분된 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보유하고 있음	171(61.3%)	109(72.7%)	62(48.1%)
보유하고 있지 않음	108(38.7%)	41(27.3%)	67(51.9%)
합 계	279(100%)	150(100%)	129(100%)

(4)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차이의 유의성을 χ^2 검정해보면 유의수준 0.1% 미만에서 유의적이다.

5. 決算業務遂行의 頻度

회계는 일정한 시점에서의 재무상태와 일정한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 등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비롯한 각종의 자료를 작성함으로써 기업경영에서 발생하는 成果評價 및 統制 등의 문제해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즉, 회계는 기업의 과거활동을 회고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를 조망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정보를 산출함으로써 성과평가 및 통제 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처럼 회계정보가 기업의 경영관리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適時性을 지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결산업무를 가능한 한 자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거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자주 결산업무를 수행하는지 알아보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결산업무를 어느 정도나 자주 수행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분석대상 전체기업의 경우에 대한 것과 기업의 규모별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구분된 기업의 경우에 대한 것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전체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절반 이상인 50.9%의 기업이 매월 1회 결산을 하고 있으며, 9.0%의 기업이 매분기별 1회, 18.6%의 기업이 매반기별 1회 결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상당수의 기업들이 매반기별 1회 이상 결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매년 1회만 결산업무를 수행하는 기업도 21.5%에 달함으로써 결산업무수행의 빈도가 낮은 기업도 적지 않음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분석을 기업의 규모별로 실시해 본 결과 대기업에 있어서는 61.7%의 기업이 매월 1회 결산을 하고 11.4%의 기업이 매년 1회 결산을 하는 반면,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38.5%의 기업이 매월 1회 결산을 하고 33.1%의 기업이 매년 1회 결산을 하는

<표 6> 결산업무수행의 빈도

	전체기업의 경우	기업규모별로 구분된 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매월 1회	142(50.9%)	92(61.8%)	50(38.5%)
매분기별 1회	25(9.0%)	10(6.7%)	15(11.5%)
매반기별 1회	52(18.6%)	30(20.1%)	22(16.9%)
매년 1회	60(21.5%)	17(11.4%)	43(33.1%)
합 계	279(100%)	149(100%)	130(100%)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기업규모가 클수록 매월1회 결산을 하는 기업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⁵⁾

이러한 사실은 기업이 클수록 경영관리를 함에 있어서 회계정보에 의존할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산업무를 가능한 한 자주 수행하기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따라서 결산업무수행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장기업에 대하여 半期財務諸表를 작성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성이 있고 또한 미국에서와 같이 분기별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를 이행할 능력과 토대를 어느정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 原價差異分析의 頻度

전통적으로 상당수의 기업들이 경영통제활동의 일환으로 제품생산 과정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원가관리를 하였는가를 분석하여 왔으며 이때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온 것은 원가차이분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가차이분석이 많은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원가차이분석에 사용되는 정보가 적시성을 지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원가차이분석의 빈도가 높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에 있어서 원가차이분석의 빈도가 어느정도인가를 분석하는 것은 경영통제 목적으로 회계정보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닐 것이다.

〈표 7〉 원가차이분석의 빈도

	전체기업의 경우	기업규모별로 구분된 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실시하지 않고 있음	32(11.7%)	14(9.5%)	18(14.4%)
매월 1회	104(38.1%)	72(48.6%)	32(25.6%)
매분기별 1회	82(30.0%)	36(24.3%)	46(36.8%)
매반기별 1회	36(13.2%)	16(10.8%)	20(16.0%)
매년 1회	19(7.0%)	10(6.8%)	9(7.2%)
합 계	273(100%)	148(100%)	125(100%)

(5) 매월 1회 결산을 하는 기업의 수효와 매년 1회 결산을 하는 기업의 수효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차이의 유의성을 χ^2 검정해보면 유의수준 0.1% 미만에서 유의적이다.

원가차이분석의 빈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분석대상 전체기업의 경우에 대한 것과 기업의 규모별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구분된 기업의 경우에 대한 것으로 나타내면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매월 1회가 38.1%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매분기별 1회, 매반기별 1회, 매년 1회의 순으로 나타났고 원가차이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기업도 11.7% 나타났다.

한편, 기업규모별로 원가차이분석의 빈도를 분석해보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원가차이분석을 하는 기업의 비율이 90.5%로서 중소기업의 경우의 85.6%보다 높으며, 매월 1회 원가차이분석을 하는 기업의 비율도 48.6%로서 중소기업의 경우의 25.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대기업일수록 원가차이분석을 하는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보다 신속한 원가차이분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⁶⁾ 이는 기업이 대규모화 될수록 효율적인 원가관리를 위하여 원가차이분석을 할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나아가 보다더 신속한 원가차이분석을 하여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7. 會計部署의 機能에 대한 經營者의 認識

회계는 기업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그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울러 회계는 기업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의 유용한 정보를 경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활동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회계란 기업외부의 이해관계자와 기업내부의 경영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로 각 기업에 있어서 회계부서가 수행해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역할은 기업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자들이 회계부서의 기능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회계부서가 수행할 가능한 업무일 것으로 제시된 7가지 항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3가지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경영자들의 응답에 근거하여 회계부서의 기능에 대한 경영자들의 인식현황을 파악해 보았으며 분석결과 파악된 각 항목의 相對的인 重要度는 다음의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6) 매월 1회 원가차이분석을 하는 기업의 수효와 원가차이분석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기업의 수효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차이의 유의성을 χ^2 검정해보면 유의수준 1% 미만에서 유의적이다.

〈표 8〉 회계부서의 기능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

	전체기업의 경우	기업규모별로 구분된 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재무제표 작성	253(31.2%)	140(32.1%)	113(30.1%)
원가관리	147(18.1%)	86(19.7%)	61(16.2%)
예산수립	37(4.6%)	20(4.6%)	17(4.5%)
세무조정	214(26.3%)	119(27.3%)	95(25.3%)
경영계획	14(1.7%)	9(2.1%)	5(1.3%)
자금관리	108(13.3%)	39(8.9%)	69(18.3%)
부서별 성과평가	39(4.8%)	23(5.3%)	16(4.3%)
합 계	812(100%)	436(100%)	376(100%)

이상 각 기능들의 상대적인 중요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재무제표 작성기능이 31.2%, 세무조정 기능이 26.4%, 원가관리 기능이 18.1%, 그리고 자금관리 기능이 13.3%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외의 예산수립, 경영계획, 부서별 성과평가 등은 회계부서의 기능으로서 중요하게 평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영자들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세무조정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회계인 재무회계의 기능을 경영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회계의 기능에 비하여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아울러 세무조정 기능의 상대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것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에서 세무회계가 기업의 회계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과 일관성을 가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업규모별로 따로따로 살펴보더라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자금관리 기능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경우가 18.4%로서 대기업의 8.9%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앞서 회계부서와 자금부서의 구분여부에 대한 분석에서도 파악하였듯이 중소기업일수록 회계부서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함께 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까지 회계가 기업의 경영관리에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인식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회계정보를 산출하고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과 체제를 갖추지 않은 기업이 많으며, 따라서 관리회계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하여 경영자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보다 더 강화하고 효과적인 관리회계 기법과 수단을 많이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을 시사한다. 이러한 과제를 달성함에 있어서는 企業別 事例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다른 기업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판단된다.

8. 外部公示 財務諸表의 役割에 대한 經營者의 認識

기업이 작성하여 공시하는 재무제표는 기업을 둘러싼 각종의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무회계는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과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해관계자는 기업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외부공시 재무제표가 수행할 역할에 대한 기대도 기업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자들이 외부공시 재무제표의 역할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는 외부공시 재무제표가 수행하는 가능한 역할일 것으로서 제시된 8가지 항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3가지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경영자들의 응답에 근거하여 외부공시 재무제표의 역할에 대한 경영자들의 인식현황을 파악해 보았으며 분석 결과 파악된 각 항목의 상대적인 중요도는 다음의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외부공시 재무제표의 역할에 대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자들이 인식하는 상대적 중요성은 이자율 담보조건 등 차입조건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29.0%, 법인세나 부가가치

〈표 9〉 외부공시 재무제표의 역할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

	전체기업의 경우	기업규모별로 구분된 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증권시장의 주가형성	96(11.6%)	75(16.9%)	21(5.5%)
차입조건의 결정	239(29.0%)	127(28.6%)	112(29.5%)
노사간 임금협상	51(6.2%)	31(7.0%)	20(5.3%)
제품의 가격결정	30(3.6%)	8(1.8%)	22(5.8%)
거래신용 여부의 결정	89(10.8%)	49(11.0%)	40(10.5%)
소비자의 구매결정	14(1.7%)	6(1.4%)	8(2.1%)
경영자의 성과평가	115(14.0%)	56(12.6%)	59(15.5%)
세무기관의 세액심사	190(23.1%)	92(20.7%)	98(25.8%)
합 계	824(100%)	444(100%)	380(100%)

세 등 기업이 자진신고한 세액에 대한 세무기관의 심사에 미치는 영향이 23.1%로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영자의 성과평가를 위한 수단이라는 데는 14.0%. 증권시장에서 주가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는 11.7%, 그리고 원재료나 부품공급업자가 거래신용을 공여하기 위한 신용분석과 관련하여 재무제표가 영향을 미친다는 데는 10.8%가 응답하였다. 기타 노사간 임금협상, 제품의 가격결정, 소비자의 구매결정 등에 있어서는 재무제표의 영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기업규모별로 따로따로 수행한 경우에도 결과는 대체로 위에서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증권시장에서 주가를 형성함에 있어서 재무제표가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서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16.9%로서 차입조건의 결정과 세무기관의 세액심사에 이어서 세번째의 상대적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그 상대적 중요성이 5.5%에 불과함으로써 그 중요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上場企業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는 상장기업의 투자자들은 투자의사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이고 따라서 상장기업의 경영자들은 주가형성에 있어서 재무제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어느정도의 중요성을 둘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증권시장에서의 주가형성에 있어서 재무제표가 지니는 역할에 대한 경영자의 응답비율이 그다지 높은 수준에 있지 않다는 것은 株主를 기업의 가장 주된 이해관계자로 상정하고 있는 구미선진국의 자본시장회계연구의 관점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즉, 그 동안 회계정보의 역할 및 유용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수행되어 온 주식시장에 근거한 회계학 연구는 회계정보의 역할에 대하여 매우 편협된 것으로서 특히 비상장기업에 대한 연구의 경우에는 탁상공론에 흐를 가능성마저 있을 것이라는 사실과, 이러한 실정에서는 예컨대 채권시장과 관련한 회계정보의 역할을 연구하는 것이 보다 많은 학문적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IV. 結 論

지금까지 몇가지의 주제별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회계행태를 살펴보고, 기업규모에 따라 이를 회계행태에 있어서 차이가 관찰되는지를 살펴봄과 아울러 이들이 지니는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이들의 결과를 종합하고 이로부터 향후의 회계실무 및 회계학연구에 있어서

改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상당수의 기업들에 있어서 회계부서와 자금부서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회계관련 규정집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일수록 심하다. 따라서 아직까지 이러한 미비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대기업은 경영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중소기업은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이 비용/효익 측면에서 유리하게 되어갈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가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재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사이의 수익인식 시점의 차이, 세법상 필요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 및 불필요한 세무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재무회계가 그 본연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세무회계가 재무회계와 조화되도록 함으로써 재무회계가 세무회계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최대한의 제도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세째, 결산업무 수행의 빈도가 매년 1회에 그침으로써 경영관리에 회계정보를 그다지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기업이 적지 않은 상황이며, 원가차이분석의 빈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기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의 기업에 있어서 별도의 관리회계부서를 설치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회계의 기능과 유용성에 대한 경영자들의 인식도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까지 경영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는 관리회계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거나 또는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회계의 실행을 위한 적절한 방법과 체제를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관리회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관리회계 기법과 수단을 많이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企業과學界가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네째, 그동안의 자본시장회계연구들은 회계정보와 주가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만 거의 배타적인 관심을 두어 왔으나 실제 우리나라의 경영자들은 그보다는 차입조건의 결정과 세무기관의 세액심사에 있어서 재무제표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하여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정보와 주가 사이의 관계 뿐만이 아니라 채권시장에 있어서의 회계정보의 역할이라든가 세무신고와 재무보고 사이의 관계와 같은 주제에 대한 연구를 보다 많이 하도록 시도함으로써 회계학연구의 영역을 확대함과 아울러 회계학연구가 실제 회계실무의 실정과 요구에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 논문에서는 기업규모에 따른 회계행태의 차이에 대하여만 중점적으로 알아

보았다. 그런데 실제로는 업종, 재무구조, 기업제품의 수명주기, 기업환경의 불확실성, 주로 사용되는 생산기술 등도 기업의 회계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본 논문에서 선정된 몇가지의 회계행태만을 분석해보았으나 기업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 회계행태에는 본 논문에서 분석한 것 이외에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규모 이외에도 회계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추가로 고려함과 아울러 보다 다양한 회계행태를 분석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보다 완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 이정호, 박수근, 「단체교섭에서 회계정보의 공시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노사관계연구, 제1권 제1호 (1990년), pp.87-124.
- 『한국기업의 현황과 과제』, 미간행서적,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1993.
- Bruns, W.J. and R.S. Kaplan, *Accounting and Management*,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87.
- Burchell, S., Clubb, C., Hopwood, A., Hughes, J., and Nahapiet, J., "The Roles of Accounting in Organizations and Society,"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Vol. 5, No. 1 (1980), pp.5-27.
- Mattessich, R., "The Scientific Approach to Accounting," in *Modern Accounting Research : History, Survey and Guide*, 1984.
- Ogden, S.G. and P.D. Bougen, "A Radical Perspective on the Disclosure of Accounting Information to Trade Unions,"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Vol. 10, No. 2 (1985), pp.211-224.
- Thompson, J.D. and A. Tuden, "Strategies, Structures and Processes of Organizational Decision" in *Comparative Studies in Administration*, edited by J.D. Thompson et al.,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59.